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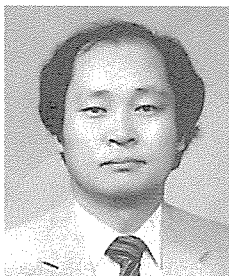
다윈과 비글호 항해기

「종(種)의 기원」으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비글호 항해를 하면서
 숭한 일화를 남기며 생물을 관찰하고 생물표본과 화석을 모았다.
 다윈이 처음 배를 탈 때는 함장과 의 말 벗이 되기 위해서였으나 함장과
 격렬한 논쟁으로 또 폭풍으로 몇차례의 위기를 넘겼으며 벤추카라는
 빈대에 물려 풍토병에 걸리는 등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인류에게 귀중한 업적을 남긴 것이다.

2월 12일은 「종(種)의 기원(起
 源)」으로 진화론을 주장하고 인
 류 최고의 과학여행기인 「비글호
 항해기」를 쓴 유명한 찰스 다윈
 (1809~82년)이 탄생한 지 191주

년 되는 날이다 (같은 날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에
 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탄생했다. 두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
 한 환경이나 업적은 너무 달라도 모두 인류에게 귀중한 업적을 끼쳤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흔히 찰스 다윈과 1831년 말부터 1836년 10월까지 계속된 '비
 글호' 항해에 관해 몇가지를 잘못 알고 있다. 첫째 다윈은 박물학자로 승
 선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핏츠로이 함장의 말 벗 정도로 승선했, 승
 선하는 동안 그의 식대도 자기가 내었다. 함장이라는 직책이 권위의 상징
 이자 외로운 직책으로, 1826년부터 1830년까지 '비글호' 1차 항해시 함
 장이었던 프링글 스톡스는 1828년 8월 자살했을 정도였다. 그런 사실



蔣 舜 權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을 잘 알았던 핏츠로이 함장은 말 벗도 필요했고 자신이 절대 신임하던 성경에 따라 당시 거론되던 생물의 진화주장을 반증
 할 자료를 찾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다윈을 승선했다(그러나 화석을 수집하고 지질학과 고생물학에 큰 소양이 있었
 던 다윈은 함장이 기대하던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당시 관례대로 하면 '비글호'의 군의관이었던 외과의사가 정식 박물학
 자였다. 그러나 '비글호'가 리오 데 자네이로에 들어왔을 때 그 외과의사는 배에서 내렸고 후임 군의관이 오지 않으면서 다
 윈이 자연스럽게 박물학자가 되었다. 또 다윈은 갈라파고스섬에 상륙했을 때 생물의 진화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당시 그는 동
 물들의 미소한 차이를 알지 못했다. 그 섬에서 오래 산 영국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 후 조류학자들이 새의
 부리 크기와 모양에 미소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환경에 따라 생물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생각했고 믿게 되었
 다. 다윈은 「종의 기원」은 물론이고 「비글호 항해기」도 쓰지 못할 뿐 한 일이 두번 있었다. 한번은 '비글호'가 리오에 정박했
 을 때 노예제도에 관해 다윈과 함장이 격렬한 논쟁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불같이 화가 난 함장은 다윈에게 결별을 선언했고
 다윈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함장이 곧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다윈은 리오 부근 조사차 배에서 일시 내리므로 두사람은 평
 온한 관계를 회복했다. 또 한번은 '비글호'가 케이프 혼 부근에 있었던 1833년 1월 13일 정오 폭풍에 큰 파도가 들어쳐 고
 래잡이 보트에 물이 들어차 배가 기울어지자 함장은 고래잡이 보트를 잘라버려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비글호'는 충격에 떨
 었고 잠시 동안 키가 말을 듣지 않았다. 다윈은 "만약 처음 같은 파도가 한 번 더 있었다면 우리 운명은 영원히 끝장 났으리
 라"고 항해기에 썼다.

다윈은 출항시 2년 예정이었던 항해가 5년 가까이 늘어났어도 하루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서 생물을 관찰하고 생물표본과
 화석을 모았다. 결국 그는 동태평양의 외로운 섬 갈라파고스군도에서 과학과 인류를 발전시킨 위대한 주장의 토대가 되는 귀
 중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러나 다윈은 아르헨티나에서 벤추카라는 빈대에 '공격' 당해 사가스 병이라는 남아메리카 풍토병
 에 걸려 일생을 고생스레 살았다.

인류는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의 피와 땀으로 발전한다. ㉮